

## 건설근로자의 연령대별 낙관적 편견 분석

- 두려움 및 지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Optimistic bias according to the Age of Construction Workers

- Based on Dread and Knowledge -

○안 나 진\*

An, Na-Jin

한 상 원\*\*

Han, Sangw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ptimistic bias according to the age of construction workers, based on risk perception and knowledge.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duce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number of victim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need for safety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root cause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optimistic bias according to the age of construction workers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reflecting slovic's risk perception the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afety behavio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

키워드 : 불안정한 행동, 낙관적 편견, 위험지각이론, 건설근로자의 연령, 건설안전사고

Keywords : Unsafe behavior, Optimistic bias, Risk perception theory, Age of construction workers,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1.25%로, 전 산업 재해율이 0.65%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 중 불안정한 상태는 환경적, 물적 측면에서 다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기술적 대책이 활용될 수 있다(정은빈, 2021). 반면, 불안정한 행동은 발생원인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요인을 주로 작업자의 부주의로만 처리하는 실정이라 방지 대책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임종록 외, 2023). 따라서 최근에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안전의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론 및 측정 방식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최재덕, 이승재, 2019).

본 연구에서는 건강 예방, 위험 분야에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설명하는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을 토대로 건설근로자의 위험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낙관적 편견의 영향 요인 중 슬로빅(Slovic)이 제시한 두려움과 지식(이영애, 이나경, 2005)을 중심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 중년, 노년 근로자의 특성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여 건설근로자의 연령별 특성이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문헌의 예비적 고찰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가설을 설정한다. 둘째,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설검증 및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행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은 자신이 타인보다 부정적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더 적다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Weinstein, 1980). 이러한 편견은 건설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낙관적 편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관찰자가 느끼는 낙관적 편견의 정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낙관적 편견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이민영과 이재신(2009)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기사 프레임의 형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낙관적 편견을, 이연숙(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적, 지식의 차이에 따른 에이즈 발생에 대한 낙관적 편견 정도를 조사하였다.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근로자가 느끼는 낙관적 편견에 대해 조사하고, 근로자의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2.2 슬로빅(Slovic)의 위험지각

본 연구는 낙관적 편견을 분석하는 개인적 변인으로 슬로빅(Slovic)의 두려움과 지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려움은 해당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커질 때 개인적 수준의 위험지각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본다(김인숙, 2012). 반면, 지식은 위험에 대한 개인적 지식의 주관적인 정도, 위험에 대한 친숙성의 정도를 의미한다(이영애, 이나경, 2005). 즉,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위험에 대한 지각이 낮아지며, 낙관적 편견이 증가할 수 있다(김인숙, 2012).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작업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작업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낙관적 편견이 높아질 것이다.

## 2.3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인구학적 변인

정영주와 박진희(2016)는 연령에 따라 낙관적 편견과 건강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종록 외(2023)는 재해 형태별 빈도 및 강도의 정도가 건설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들어가며 운동신경이 둔화되어 민첩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성수 외,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의 연령은 낙관적 편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고위험의 차이를 낙관적 편견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작업이 단순하다고 생각할수록 위험 인식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신체 능력 및 반응속도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위험 인식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작업에 대한 경력,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지식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작업에 대한 안전의식이 강하다고 믿을수록 지식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 3. 예상결론 및 기대효과

건설근로자의 평균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연령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건설안전관리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연령별 특성이 사고발생에 대한 낙관

적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신의 신체 능력, 반응속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근로자는 사고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반면, 경력 부족으로 지식이나 경험이 낮아 오히려 낙관적 편견이 낮을 수도 있다. 반면, 노년층 근로자는 건설작업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해당작업에 대해 능숙함을 느끼고, 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여, 낙관적 편견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위험발생에 대한 두려움 증가로 낙관적 편견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낙관적 편견은 해당공종이 내포한 위험성이나 요구되는 육체적 강도에 큰 영향을 받아 다른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통해 공종별로 연령과 낙관적 편견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행동의 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2
2. 정은빈. “건설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과 떨어짐 사고의 관계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3. 임종록, 조선영, 윤성민. “건설업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재해 발생형태별 상관관계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3.3 (2023): 371-380.
4. 최재덕, 이승재. “건설근로자가 인식하는 안전의식이 불안정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조절후원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1 (2019): 27-32.
5. 이영애, 이나경. “위험지각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적 구조.” 2005 PMORP WORKSHOP : 위험지각의 심리적 메카니즘 2005. (2005): 1-12.
6. 이민영, 이재신. “위험인식의 낙관적 편견에 대한 프레임과 관여도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보 48.4 (2009): 191-210.
7. 이연숙. “서울시 고등학생의 에이즈 문제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1. 서울
8. 김인숙,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각된 지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제 3자 효과가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3 (2012): 79-106.
9. 신성수, 신승우, 강경식. “중고령근로자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재해예방” 2016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97-129.
10. 정영주, 박진희. “중년기 성인의 뇌졸중 관련 건강지식, 낙관적 편견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2016): 141-155.